

한국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의 함의

Online Series

2024. 03. 28. | CO 24-26

이 용 재(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 부연구위원)

2024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본고는 미국 이외 국가에서 처음으로 단독 개최되어 전 세계적으로 기대가 컸던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무엇이며, 이번 회의에서 다룬 주요 의제와 글로벌 가치 진영화 및 한반도 통일을 공론화하는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하겠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란?

미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 부문, 학계의 다양한 지도자들이 모여 ‘민주주의 강화’, ‘권위주의에 대항’, ‘부패 척결’, ‘인권 증진’을 논의하는 공론화의 장이다.¹⁾ 이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 했던 약속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고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글로벌 수준에서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에서 회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회의를 통해 전 세계에 민주주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인 만큼, 팬데믹, 노동, 경제 불평등, 부패, 첨단기술, 성평등, 이민 등 다양한 요소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인권, 자유, 권리 침해와 이에

1) “Frequently Asked Questions,” *The U.S. Department of State*, <<https://www.state.gov/further-information-the-summit-for-democracy/>> (Accessed March 20, 2024).



대한 해결책이 활발하게 논의된다.²⁾

1차 회의는 2021년 12월 9일과 10일 양일간 가치와 이념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하에 화상으로 열려 약 110개국 정상에 참여한 가운데 민주주의 증진, 권위주의에 대한, 반부패, 인권 개선이라는 의제로 진행되었다. 2023년 3월 28일, 29일, 30일, 3일간 진행된 2차 회의는 한국,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가 공동 주최하여,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행동의 해(Year of Action)’라는 컨셉으로 약 12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8일 주제별 회의, 29일 정상급 총회, 30일 지역별 회의를 진행하였다.

일부에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 그저 의미 없는 ‘말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민주주의 퇴행은 국내외 요소 및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정부, 시민사회, 학계, 개인 등과 같은 다층적이고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을 통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 세계 다양한 층위와 분야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발전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미는 매우 크다.

‘청년’ & ‘신기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키워드는 미래 민주주의 발전의 역군인 ‘청년’과 인터넷, AI로 대표되는 ‘신기술’이었다. 이번 회의의 대 주제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인 만큼 청년세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현재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향후 민주주의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들이 인류의 미래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잘 가꾸어 미래세대에 전해주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³⁾ 특히 민주주의 발전에서 청년들의 역할과 이들의 민주주의 절차의 참여 보장이 강조되었다. 향후 글로벌 민주주의 발전에 기술혁신, 반부패, 성평등과 같은 분야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하여, 이들의 정책 결정, 사법, 시민 공간 등 민주주의 절차 참여를 보장하는

2) The White House, “Summit for Democracy Summary of Proceedings,” December 23, 202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12/23/summit-for-democracy-summary-of-proceedings/>> (Accessed March 20, 2024).

3) 대한민국 대통령실,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미래세대에 전해주어야,” 2024.03.20.,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efPUZLmM>> (검색일: 2024.3.21.).

기술 활용, 교육, 지원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⁴⁾ 청년들에게 추락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고양하여 이들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독려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민주주의 퇴행이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⁵⁾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세션 모두 발언에서 인터넷과 AI 등 첨단기술이 가짜뉴스를 창출하여 사회분열 및 갈등 조장, 정치 선동,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 감소를 초래하여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고 여러 번 강조하였다.⁶⁾ 한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IT·첨단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을 활용하여 향후 글로벌 민주주의 발전에서 첨단기술 분야를 선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사우스의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기 위하여 2024년부터 3년간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투명성’, ‘반부패’ 분야에 1억 달러 규모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허위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 강화, AI 식별표시 의무화, 팩트 체크 교육,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검열 강화 등 신기술과 민주주의의 조화를 도모할 것을 천명하였다.⁷⁾

‘가치 대립’의 도구인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제1차 회의부터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가치’ 대립 도구로 전락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이번 회의 기간 중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비난하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타이완의 회의 참가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대만 독립 세력의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발표하였고,⁸⁾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4)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024.3.21., <<https://s4dkorea.kr/kor/?menuno=15&ztag=r00ABXQATD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MSIgc2tpbj0ic3VibWl0X25vcml1hbCIGYmJzbn89IjExIiBzaXRlbn89IjEiPjwvY2FsbD4%3D&act=view>> (검색일: 2024.3.22.).

5) *Ibid.*

6) 대한민국 대통령실,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2024.03.20.,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nHs9aNQE>> (검색일: 2024.3.21.).

7)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화상 회의 공동 주제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2024.3.22., <<https://s4dkorea.kr/kor/?menuno=15&ztag=r00ABXQATD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MSIgc2tpbj0ic3VibWl0X25vcml1hbCIGYmJzbn89IjE0IiBzaXRlbn89IjEiPjwvY2FsbD4%3D&act=view>> (검색일: 2024.3.22.).

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24年3月18日外交部发言人林剑主持例行记者会,” March 18, 2024, <https://www.fmprc.gov.cn/fyrbt_673021/202403/t20240318_11262087.shtml> (Accessed March 22, 2024).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기간을 21년 전 3월 20일은 미군이 이라크를 침공한 날이라고 지칭하면서 미국은 ‘자유와 민주에 기초한 국제질서’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라는 이름으로 국제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⁹⁾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독립 국가이면서도 미국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는 논평을 냈다.¹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의도가 있는 동시에 권위주의 위협의 확산을 견제하고 대항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폐회사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본회의 개최식 발언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¹¹⁾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 도처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와 반지성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전 세계에서 도사리고 있는 권위주의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였고,¹²⁾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경쟁자들과 적들은 허위 정보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 내 균열을 이용하고 있고,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 기술을 이용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기에 우리는 기술이 민주적인 가치와 규범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감시·검열 기술을 확산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언급하였다.¹³⁾ 회의를 중국과 러시아를 표적으로 하는 가치 대립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대신 그동안 추구해왔던 자유, 평화, 법치, 인권 등 인류 보편가치를 보호하고 인류가 직면해 있는 다양한 글로벌 문제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및 민주주의 발전을 통한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계속해서 집중해 나아가야 한다.

9) 叶书宏, 高文成, 谢彬彬, “新华社起底美国“三大政治赤字”, 新华社, 2024.3.20., <<http://www.news.cn/world/20240320/f5dcd90dd74d4c19b959f35652726592/c.html>> (Accessed 2024.3.26.).

10) 최인영, “러 "韓, 불명예스러운 민주주의정상회의 거부 못해 놀라워”, 『연합뉴스』, 2024.3.20., <<http://www.yna.co.kr/view/AKR20240320173400080>> (검색일: 2024.3.23.).

11) The White House, *Ibid.*,

12) 외교부,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회사”, 2024.3.21., <https://www.mofa.go.kr/w/w/brd/m_26779/view.do?seq=519> (검색일: 2024.3.27.).

13) 최인영, “러 "韓, 불명예스러운 민주주의정상회의 거부 못해 놀라워”,”; Michael Crowley, “Blinken Warns of Disinformation Threat to Democracies,” *The New York Times*, March 18, 2024, <<https://www.nytimes.com/2024/03/18/world/asia/blinken-artificial-intelligence-threat.html>> (Accessed March 22, 2024); “Secretary Blinken remarks at Ministerial Conference of the Third Summit for Democracy,” *The U.S. Department of State Youtube*, March 18, 2024, <https://www.youtube.com/watch?v=Ou8g_NIm0x4> (Accessed March 22, 2024).

한반도 통일을 공론화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국에서 회의가 개최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및 한반도 통일에 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은 향후 ‘민주주의 강화’, ‘권위주의에 대항’, ‘부패 척결’, ‘인권 증진’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증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공론화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 및 한반도 평화통일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임을 강조하였듯이 한국의 민주주의 완성에는 단순히 남한 주민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통해 인권이 침해되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까지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¹⁴⁾ 회의에서 공론화를 통한 북한 인권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 및 확대하여 그동안 가해자에 대한 권고에 그쳤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회의에 참여한 국제기구, 정부, 시민단체, 학계와 연대하여 처벌과 책임규명 강화로 발전시켜야 한다.¹⁵⁾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했을 때 통일에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이러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북한의 개혁·개방과 민주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회의에서 대통령, 총리, 외교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의 연설과 ‘한반도 통일’ 혹은 ‘북한 인권’ 세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¹⁶⁾ 특히 ‘민주주의 정상회의’라는 글로벌 수준의 포럼에서 민주주의와 한반도 통일 및 북한 인권 개선의 상관관계를 논의함으로써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 시민단체, 학계의 민주주의 확산 노력이 한반도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의 동력이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한반도 평화통일이 국제 평화·안정과 글로벌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한반도 통일에 국제적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KINU 2024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4) 대한민국 대통령실,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해 노력할 것,’” 2024.3.1., <<https://www.president.go.kr/president/speeches/XbuyG7Tm>> (검색일: 2024.3.27.).

15) 김태원, “새로운 통일 비전과 북한 인권,”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 자료집, 2024.3.20.), p. 23.

16) 김현욱,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 토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대북정책 방향’, 2024.3.20.).